

사월의 노래

박목월(朴木月)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 읽노라

구름 꽃 피는 언덕에서 피리를 부노라

아 아 멀리 떠나와 이름 없는 항구에서 배를 타노라

돌아온 사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둔다

빛나는 꿈의 계절아

눈물어린 무지개 계절아

목련꽃 그늘 아래서 긴 사연의 편지 쓰노라

클로버 피는 언덕에서 휘파람 부노라

아 아 멀리 떠나와 깊은 산골 나무아래서 별을 보노라

돌아온 사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둔다

빛나는 꿈의 계절아

눈물어린 무지개 계절아

우리나라의 따뜻하고 예쁜 자연을 사랑하고 많은 시를 남긴 청록파 시인 박목월선생님의 시〈사월의 노래〉입니다. 김순애선생님이 작곡해서 1960년대 이후 아주 많이 사랑받고 불리고 영화 속의 노래로도 사용되었죠. 봄은 우리들에게 이월부터 아득하게 꿈을 꾸게 하다가 삼월에 망울망울 병그는 꽃들을 보여주고 사월에 이르러 눈물 나도록 빛나는 풍경을 선물합니다. 목련꽃, 구름 꽃, 클로버-참 좋은 계절의 언덕에서, 세계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울린 독일 작가 괴테의 소설책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으며, 편지를 쓰며 휘파람부는 멋진 청년이 눈에 선하네요. 우리는 이 사월에 어떤 책을 읽으면서 구름 꽃 피는 언덕을 올라볼까요.

(글/김영숙(시인, 해오른누리기획실장))